

올 추석에는 순창 발효소스토굴 가볼까

연휴 기간 무료 개방...길이 134m 대형 저장고 세계소스관·장류 역사 전시관 등 볼거리 풍성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발효소스토굴을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다.

순창 발효소스토굴은 순창읍 백산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에 위치한 길이 134m에 최대폭 46m인 대형 저장고로, 세계소스전시관과 소형저장실, 원형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곳은 장류사업이 발달한 순창군의 특성상 장류 관련 사업체들의 장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전시관과 콘텐츠를 구축해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새롭게 가상현실 체험관 등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며 강천산과 함께 지역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만 5540명, 지난해에는 6만2424명으로 7000여명의 관광객이 증가했다. 이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발효소스토굴은 올해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방문

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군이 고조선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류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도 새롭게 구축해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효소스토굴에 가면 순창에서 개발한 발효커피도 마실 수 있어 볼거리와 함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발효소스토굴은 미디어아트 체험공간과 대형 저장고, 트릭아트를 활용한 포토존 등도 조성돼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발효소스토굴을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순창읍 백산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발효소스토굴 전경. <순창군 제공>

김재건 순창군 장류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자 편성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발효소스토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군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기관 추진 연말까지 행정절차 완료...내년 2월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새만금 및 유희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 태양광과 풍력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결과 1.09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시의회 간담회’ 등을 가졌다. 이는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지역 주민 1000여명의 설문조사에서는 희망하는 ▲투자 기간 5년이 27.5% ▲수익률은 7% 이상이 26.2% ▲최대 투

자금액은 5000~6000만원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투자를 통해 20년간 발전사업이 지속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억 45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0억 4400만원 ▲취업 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광순 군산시 에너지담당관은 “전북도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정관 제정 및 임원공모·임명, 법인설립 등기 등을 통해 내년 2월 중에 출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태양광, 공공 유희부지 태양광, 해상 풍력 등을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내년 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123억 확보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비 86억원을 확보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개소, 시군역량사업 1개소로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낙후된 면 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 보질, 이백면이 선정돼 각 지역 당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군역량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 등 자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3억원이 투자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시행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2020년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상실감이 큰 마을들(기사업 8개소)과 농촌 다음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특 사업비를 우선 투자해 농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18년 14개사업 192억원, 2019년 14개사업 135억원을 확보해 대강면,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산동면,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수지 서당, 아영 봉대 등 19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추석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주력 SMS발송·마을방송 통해 농장 방문금지 등 홍보 강화

익산시는 추석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주력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연휴동안 SMS발송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귀성객과 축산농가에 농장 방문금지 및 농가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

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과 17일을 일제 청소·소독의 날로 지정해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양돈밀집지역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해서는 축협공동방제단과 축산과 보유 소독차량을 이용해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시는 명절기간에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방역관리 수칙 준수, 차량소독 철저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유입 차단 홍보에 주력할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차단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ASF발생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은 귀국 시 소시지 등 수입축산물을 휴대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농생명식품·역사문화관광 등 고창군, 내년 주요사업 보고회

고창군이 농생명식품·역사문화관광 수도 도약을 위한 ‘2020년 주요업무와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업무 추진 준비에 착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 주재로 지난 2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내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시책 등에 대해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도 군정 업무 준비에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중점목표인 서해안권 관광기반 구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내년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출시, 고창문화관광재단 본격운영,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대규모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전북대도와 핵심프로젝트와 내년도 도정 역점시책 등 도정 운영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군특 지방이양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확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주요 하천 치어 방류 사업 박차

동진천 등 어족자원 확대...메기·붕어 등 92만미 추가 방류

정읍시가 동진천 등 주요 지방하천과 소류지 5개소에 치어(稚魚)를 방류하는 등 치어방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회장 김윤중) 회원과 내수면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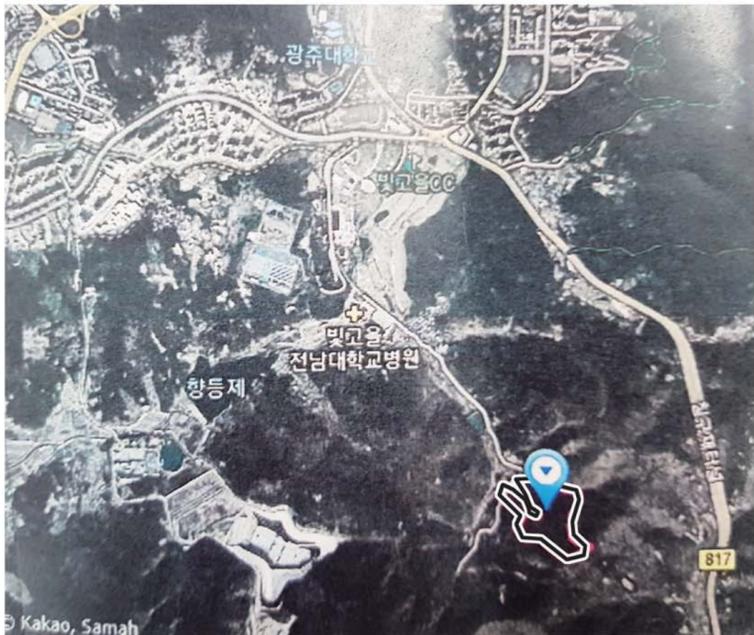
산 어업인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메기 50만미를 방류한 데 이어 붕어·동자개·다슬기 등 치어 92만미를 추가 방류했다.<사진> 매년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

는 앞으로도 물고기 생태환경 분석과 방류 효과 조사사업 등을 실시해 수변별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 방류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방류된 어린 물고기들이 생태환경에서 잘 서식해 공유수면 내 풍부한 어족자원이 확대·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